

Business & Incubator Company

벤처의 기술과 벤처 인큐베이터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LIFEGOOD INC

www.lifegood.com

권혁일 대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고객의 비즈니스 기회와 기업변화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웹사이트 구축부터 프로모션 등 종합적인 웹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 라이프 굿. “남다른 창의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권혁일 대표의 창업기를 들어본다.

권혁일 대표. 그의 창업에 엄청난 결심과 준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닫게 됐을 때, 함께 일하던 뜻맞는 팀원들과 자연스레 간판을 건 게 현재의 회사가 된 것.

권 대표는 “지난 2005년 7월에 창업하여 MB국 민캠프, 중앙대,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2007년 11월에 LIFEGOOD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으며, 2008년 2월에 ISO9001 (품질), ISO14001(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 개발 전담 부서 및 벤처 기업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제작 부분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간의 발전 상황을 설명한다.

LIFEGOOD INC는, 인터넷 환경과 진화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문 e-business stylist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치 증대와 e-corporation으로의 성장 및 변화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고객의 비즈니스 기회와 기업변화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분야는, 웹사이트 구축 및 기획, 고객사이트 유지관리 및 운영대행, e-Business Strategy 수립, 기업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기회의 도출, 웹 프로모션, 사내 인터넷 사업 및 그룹웨어, On/Off line 마케팅 기획 및 코디네이션, eCRM 솔루션 구축 및 개발 등 웹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권 대표는 창업 당시 자본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창업보육센터를 알게 되었다. 그는 창업 보육 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센터에 입주하면 경영지원 및 마케팅 지원, 회사 컨설팅 지원,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특혜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 중앙

대학교 신기술비즈니스센터 소장님과 매니저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LIFEGOOD INC만의 인재상

LIFEGOOD INC는 ‘잘 웃는 친구’, ‘낙서를 좋아하는 친구’, ‘미래 사회를 걱정하는 친구’, ‘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는 친구’,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원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눈과 마음을 흔들어야 하는 웹을 다루는 회사로서 무엇보다도 남다른 창의력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CEO입니다. CEO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짓말쟁이이고 모든 판단과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인력관리 등 회사를 위해 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CEO에 따라 회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회사가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고 회사가 숨을 멈출 때 같이 멈춘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CEO가 될 것이라 다짐합니다’라며 각오를 밝힌다.

창업 이래, 주5일 근무를 어긴 적이 없는 라이프 굿, “야근 NO!, 밤샘 NO!”라는 캠페인을 통해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 외의 시간은 각자의 자기개발에 힘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IT업계에서 밤먹듯 진행되는 야근의 악순환을 끊는 노력 또한 반갑다.

지금까지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기 시작한 라이프 굿은, 웹 에이전시로서 좋은 서비스와 품질로 고객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있으며, 고객의 발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제 제 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있으니 올해 안에 멋진 콘텐츠가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벤처 중소기업을 양육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

“성공기업 육성”이라는 가치이래 경쟁력있는 우수신생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맡고있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 기업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을 완성키 위한 창업보육시스템의 일관화를 자랑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만나본다.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창업의 메카로,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제시할 만큼 탄탄한 운영능력과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86개의 신생기업을 배출했으며, 현재 15개의 신규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산업의 기반 확충과 생산성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은 보육매니저 과제(Task)별로 대학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운영매뉴얼을 구축하고 기계제조, 장비, 전자분야를 특화시켜 대학 창업보육사업 체계화 및 운영역량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주/졸업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구축으로 입주기업의 경영·기술지도 등을 외부 인력풀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수 매니저는 “창업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지식 등을 포함하여 신규입주 기업들의 요구(Needs)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 최상의 보육 환경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의 강점은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나온다. 유망입주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선도기업 (Leading

Company)을 육성하고 다른 입주기업들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연스럽게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그 결과 매년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실시되는 전국 센터별 운영평가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S등급)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설자금 이외 정부교부금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270여 개에 달하는 창업보육센터 가운데서도 이곳이 눈에 띄는 이유는 대학내 공장동 시설을 이용한 “생산형 보육시설 운영”에 있다. 이것을 통해 실제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었고 센터 재정지립 여건도 개선되었다” 고 박 매니저는 귀띔한다.

한국폴리텍Ⅳ대학은 3개 대학(대전, 청주, 홍성대학) 연계를 통한 Pre-BI육성, Main-BI, 향후 생산형 보육시설인 Post-BI 운영으로 완벽한 한국형 창업보육센터의 완성을 지향한다.

추천기업으로는 (주)비트코를 들 수 있는데 휴대용 전호등 개발로 현재 철도청 독점납품 계약을 하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기존 사용 제품을 철도청 박물관에 영구전시하게 했다. 현재 아이템을 확대하여 홍콩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센터 내 대표기업으로는 IP-TV셋톱박스 개발 등 IP-TV 방송관련 6가지 제품을 개발, 판매중인 (주)스트림비전이 있다.

◎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

- * 센터 장 : 이건범
-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91-2
- * 시설 : 보육실, 공장동실, 세미나실
- * 특화분야 : 기계, 장비, 전자분야
- * 입주기업 : 벤처기업 - 6, 일반기업 - 6, 예비창업자 - 3

◎ 보육기업이 말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창업보육센터

“회사의 미래가치를 파악하여 조언하며 외부 전문가 풀을 상시 가동시켜 주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을 알고 지원하는 센터장/매니저의 역량이 돋보입니다. 체계적으로 반기 단위로 사업진행도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 동반성장 지원 체제 상시 가동으로 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